

〈일반논문〉

## ‘樂浪望族’ 李仁德 出自의 재검토

정재남 \*

〈목차〉

- I. 서론
- II. 이인덕 선조의 출신지
- III. 이인덕의 爵號와 私第·葬地 소재지
- IV. 결론

[국문초록]

고구려 멸망(668) 이후 唐 內地로 徙民된 고구려 유민 및 그 후예와 관련, 사료의 出自 기록이 애매하여 민족 정체성 논란이 큰 인물의 하나가 李仁德(672~733)이다. 초기 연구자들은 「이인덕 묘지명」에 그의 선조를 ‘樂浪望族’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樂浪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여러 선행연구에서 唐玄宗이 中宗 皇后 韋氏 일파 제거를 위해 일으킨 政變에 참여한 이인덕을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이인덕 묘지명」의 ‘樂浪望族’ 서술만으로 그를 고구려계 인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인덕 공훈 작호 ‘金城郡開國子’ 중 郡號인 ‘金城郡’이 소그드인 연고지이었던 점 그리고 그의 私第 소재지 ‘醴泉里’ 및 葬地 ‘高陽原’이 모두 唐京 長安城 내 소그드인의 집단 거주지 및 장지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인덕을 소그드계 인물로 추정하였다.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중어중문학과, 고대중국어 전공)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이에 본고에서 주요 쟁점의 논거를 재검토한 결과, 「이인덕 묘지명」의 ‘樂浪望族’ 표현만으로 이인덕 가계를 고구려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역으로 굳이 고구려와 관련이 깊은 ‘낙랑’을 郡望과 연결한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이인덕 공훈 郡號인 ‘金城郡’은 고구려 유민이 徙民되고 고구려 단결병으로도 활동한 隴右道 지역에 속하였기에, 도리어 이인덕의 고구려계 출자 개연성을 입증할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안성 내 거주한 고구려 및 소그드계 등 異域 출신 유력 인물들의 私第 소재 구역 및 葬地가 반드시 出自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닌 여러 사례를 확인하였다.

‘낙랑망족’ 이인덕의 出自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논거만으로 고구려계 유민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주제어

李仁德, 고구려 유민, 소그드인, 樂浪望族, 金城郡, 隴右道, 醴泉里, 高陽原

## I. 서론

고구려 멸망(668) 이후 唐 內地로 徙民된 고구려 유민 1세대 및 그 후예들의 활동은 당 高宗대(649-683)부터 ‘安史의 난’(753-763) 이후까지 1백 년 이상에 걸쳐 나타난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 및 그 선대의 出自를 규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들의 출자에 관한 사료 자체가 극히 적은 사정 이외에도 특히 隋唐의 오랜 숙적이었던 고구려계 유민에 대한 唐地 사회의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묘지명 등에서도 자신이 고구려 유민임이 밝혀지는 것을 피하려고

면 조상의 연원을 당시에도 입증하기 어려운 고대 중국의 인물 등과 연계시켜 과장 내지 왜곡하거나<sup>1)</sup> ‘郡望’ 표현 등을 사용<sup>2)</sup>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가 李仁德(672~733)이다. 이인덕은 武周 시기(690-705) 및 開元 연간(713-741)에 당 조정에서 활동했지만, 이인덕과 관련된 내용은 묘지명을 제외한 문헌 사료에서 거의 찾기 어렵고, 묘지명에 나타나는 출자 기록 역시 애매하여 민족 정체성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陝西省 西安에서 출토된 「이인덕 묘지명」<sup>3)</sup>에 나타나는 이인덕의 출자 관련 내용은 모두 다섯 문장이며, 이는 다시 이인덕 가계의 郡望과 기원 등 선조의 출신지, 이인덕이 받은 공훈 爵號 그리고 장안성 내 이인덕 私第·葬地 소재지로 나눌 수 있다.<sup>4)</sup> 「이인덕 묘지명」 출토 이후 이

- 
- 1) 이문기,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 『大邱史學』 100, 2010; 이성제,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2017; 안정준, 「당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 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가계 기술」, 『역사와 현실』 101, 2016 등.
- 2)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 3) 誌石은 현재 중국 섬서성 서안의 碑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지문 끝에는 “澗秋館鑒藏金石書畫印”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澗秋館은 복건성 閩候에 살던 陳承裘(1827~1895)라는 인물의 齋堂號이므로, 묘지가 한때 그의 가문 소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탁본은 두 가지 종류가 전하고 있다. 하나는 北京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는 原北平圖書館舊藏本이고, 다른 하나는 北京大學이 소장하고 있는 張氏柳風堂舊藏本이다. 두 가지 탁본의 상태가 양호하여 대부분의 글자를 판독할 수 있다. 탁본의 크기가 가로·세로 모두 58cm이므로, 지석은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首行은 30자, 지문은 27행으로 행마다 27자씩 601자를 음각하였다. 撰者와 書者에 대한 기록은 없다(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목간과 문자』 24, 2020, 324쪽).
- 4) ① 其先蓋樂浪望族也, ② 自堯臣類馬, 周史猶龍, 眞裔散於殊方, 保姓傳於奔代. ③ 是用拜公…金城縣開國子…進封開國公. ④ 薨於醴泉里之私第. ⑤ 葬於高陽原. 등 다섯 개 문장이다.(張氏柳風堂舊藏本(孫蘭風·胡海帆 主編, 『隋唐五代墓誌匯編: 北京大學卷』 1, 天津古籍出版社, 1992, 134쪽; 于平 編輯, 『中國歷代墓誌選編』 4, 天津古籍出版社, 2000, 155쪽).

이인덕 출자에 관한 국내외 학계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인덕의 출자 기록이 애매하기에 고구려와 연결하는 분류를 유보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이인덕 가계가 고구려와 관련될 개연성을 적극 부인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용구(1995)는 핵심 사료인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난 이인덕 출자 관련 논거가 애매하기에 이인덕 가계가 낙랑과 관련되었을 개연성 정도만을 언급하였다.<sup>5)</sup> 苗威(2011)는 그의 논저 『高句麗移民研究』에서 고구려 유민 부류에 이인덕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sup>6)</sup> 葛繼勇(2016)은 이인덕을 고구려 유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sup>7)</sup>

둘째, 이인덕 가계를 고구려계로 분류하는 견해다. 姜清波(2004, 2005, 2010)는 이인덕에 대해 唐玄宗이 中宗의 皇后인 韋氏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政變에 참여했던 高木盧 및 王景曜 등과 함께 고구려 유민으로 추정하였다.<sup>8)</sup> 이어 이문기(2010), 권덕영(2010), 拜根興(2012), 이동훈(2014), 曠승훈 외(2015), 안정준(2016), 정호섭(2017) 및 植田喜兵成智(2019) 등 여러 연구자가 이인덕을 고구려 유민 후예로 분류하였다.<sup>9)</sup>

5) 「이인덕 묘지명」의 존재는 이미 1993년에 한국에 소개된 바 있었지만, 전문은 물론 전거조차 제시하지 않았기에, 1995년의 자료 소개를 통해 한국학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尹龍九, 「樂浪遺民의 墓誌 二例」, 『仁荷史學』 3, 1995, 9-13쪽).

6) 苗威,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11.

7) 葛繼勇, 「高句麗·百濟人墓誌銘からみる高句麗末期の對外關係」, 『アジア遊學』 199, 2016, 47-49쪽.

8) 姜清波, 「參與唐玄宗宮廷政變的高麗人事迹考」, 『青海社會科學』 2004-6, 110쪽.

9) 李文基,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 『大丘史學』 100, 2010, 71-72쪽; 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 - 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97, 2010, 21쪽;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以西安洛陽出土墓志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181쪽; 이동훈, 「高句麗·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韓國古代史研究』 76, 2014, 276쪽; 曠승훈 외, 『중국 소개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372-375쪽; 안정준, 「당

셋째, 이인덕의 고구려계 혈통을 부인하는 견해다. 김수진(2017a, 2017b)은 이인덕을 고구려 유민으로 분류하는 유일한 근거가 「이인덕 묘지명」에서 그의 선조를 ‘樂浪望族’이라고 표현했던 서술뿐이며, ‘樂浪望族’만을 근거로 이인덕을 고구려 유민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장안에 私第가 특정된 5품 이상의 고구려 유민은 모두 街東 萬年縣에 사제를 보유하고었는데 冠軍大將軍(무산 정3품) 右威衛將軍(직사관 종3품)을 최종 관직으로 한 이인덕의 사제는 西市에 인접한 醴泉坊에 있었는바, ‘예천방’은 소그드계의 집단 거주지였기에, 이인덕의 출자가 분명하지 않고, 고구려 유민 2세대라고 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구려 유민에서 제외하였다.<sup>10)</sup> 권순홍(2020)은 김수진(2017a, 2017b)의 견해를 토대로 “其先蓋樂浪望族也”라는 ‘애매한’ 郡望 표현 이외에도 「이인덕 묘지명」에 등장하는 ‘金城’, ‘醴泉坊’ 및 ‘高陽原’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인덕이 오히려 서역의 소그드인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을 제기하였다.<sup>11)</sup> 즉, 이인덕 공훈 작호 ‘金城郡開國子’에 보이는 ‘金城郡’이 서역과의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소그드인 연고지의 하나이고, 그의 사제가 있었던 ‘醴泉坊’은 소그드인의 집단거주 구역이었으며, 그의 장지였던 ‘高陽原’은 서역계 非漢人이 주로 장지로 택했던 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인덕을 소그드계 인물로 본 것이다. 권덕영은 당초 이인덕을 고구려계 인물로 분류하였던 입장(2010)과는 달리, 뒤에 그가 편찬한 『在唐韓人墓誌銘研究』

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 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가계 기술, 『역사와 현실』 101, 2016, 40쪽; 정호섭,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先史와 古代』 53, 2017, 144쪽;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高句麗渤海研究』 64, 고구려발해학회, 2019, 247쪽.

10)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의 私第와 葬地」, 『史學研究』 127, 2017a; 金秀鎮,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7b, 75-77쪽.

11)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목간과 문자』 24, 2020.

(2021)의 「고구려유민 묘지명」 편에서 이인덕을 제외하였다.<sup>12)</sup>

이에 본고는 이인덕의 출자에 관해 거의 유일한 1차 사료인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나는 선행연구에서의 주요 쟁점 즉, 그의 조상 출자를 나타낸 ‘樂浪望族’과 그가 받은 공훈 작호 중 ‘金城’, 이인덕의 私第 소재지인 장안성 내 ‘醴泉坊’ 및 장지 소재지 ‘高陽原’ 등의 논거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郡望의 郡名 표기와 관련한 竹田龍兒(1951) 등의 선행연구 성과는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인덕 출자 논거에 관한 분석을 통해 在唐 고구려 유민 및 후예들의 당 사회 내 행적과 위상,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인덕 선조의 출신지

### 1. 이인덕 가계의 郡望

먼저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나는 이인덕 가계의 본적지를 살펴보면, 이인덕 선조의 郡望<sup>13)</sup>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그 선조는 대저[蓋] 樂浪 望族이다.

12) 권덕영, 『在唐韓人墓誌銘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13) 郡望은 魏晉南北朝시대 지방의 저명한 가문을 불렀던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본인의 原籍地(「昔の本籍地」)라는 의미 이외에도 ‘조상의 발상지’(「祖先發祥之地」) 내지 ‘일족의 본래 근거지’(「一族の本来の根據地」)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竹田龍兒, 「唐代士人の郡望について」, 『史學』 24권 4호, 三田史學會, 1951, 485 쪽.) 따라서 사료에 등장하는 郡望이라는 용어는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고도 ‘遠祖의 本籍地’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 먼저 주목되는 것이 ‘樂浪’이다. 墓誌銘을 포함한 唐代까지 문헌에 나타나는 樂浪은 그 지칭하는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BC 108년 고조선 지역에 설치된 漢四郡의 하나인 ‘樂浪郡’이다. 그 위치는 지금의 대동강 일대로 AD 313년 고구려에 의해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둘째, 또 다른 낙랑으로서 ‘樂浪僑郡’이다. 한반도의 낙랑군이 고구려에 의해 멸망된 후 낙랑군 유민들은慕容廆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이주했는데, 모용외가 이 유민들을 遼西에 정착시키며 과거 이들이 살던 지역명을 계승해 여전히 낙랑군으로 이름을 붙였다.<sup>14)</sup> 이는 ‘樂浪僑郡’이며 앞의 樂浪郡과 구분된다. 셋째, 고구려, 신라를 개별 지칭하는 代稱으로서 ‘樂浪’이다. 唐代 묘지명 7,535점 가운데 樂浪이 고구려를 대칭하였던 사례로 3건(「이인덕 묘지명」 제외시 2건)이 확인된다.<sup>15)</sup>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난 郡望의 ‘樂浪’ 표기를 이인덕 출자와 연결하여 출신지를 밝히려는 선행연구를 보면, 이인덕의 선조가 4세기 초 樂浪郡 소멸 이후 이른 시기에 중원으로 이주한 사례로 보거나<sup>16)</sup> 고구려 유민임을 직접 밝히기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sup>17)</sup>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인덕이 4세기 이후 遼西지역으로 僑置된 樂浪僑郡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당의 고구려 침공 때 이주한 고구려 유민으로 보기도 하고,<sup>18)</sup> 또는 낙랑, 즉 평양 일대에

14) 이도하, 「樂浪郡의推移와 嶺西地域 樂浪」, 『동아시아고대학』 34, 2014, 13쪽.

15) 권덕영,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105~137쪽.

16) 바이건성, 「고구려·발해 유민 관련 유적·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227쪽; 拜根兴,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以西安洛陽出土墓志爲中心』, 2012, 181쪽.

17)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175쪽.

18) 안정준, 「당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 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가계 기술」,

거주하던 樂浪 李氏가 柵城으로 이주한 것으로서, 李他仁과 계통을 같이 하는 一族으로 보기도 한다.<sup>19)</sup> 이와 관련, 竹田龍兒(1951)는 郡望에 나타나는 郡名이 모두 晉魏 以前 즉, 後漢代 및 그 이전(秦)의 옛 郡名(“舊名號”)이라고 하였다.<sup>20)</sup> 동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난 郡望인 ‘樂浪’은 晉代에 교치된 樂浪僑郡일 수 없으며, 前漢代에 설치된 漢四郡의 하나인 樂浪郡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인덕의 조상은 고구려계보다는 낙랑군 출신 漢人일 개연성이 높다. 이처럼 묘비명에 나타난 이인덕 郡望의 경우, 고구려 유민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언제 낙랑에서 증원으로 이주했는지 불명확하고 고구려 출신인지도 확인할 수 없기에 고구려 유민에서 제외하기도 한다.<sup>21)</sup> 이는 묘지명 내용만으로 이인덕 출자를 밝히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덕 출자에 관한 1차 사료는 동 묘지명 이외에 없기에, 唐代 문헌 및 묘지명에 나타난 ‘樂浪’ 표기 분석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우에다(2019)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당대묘지명휘편』에 수록된 300건을 넘은 李氏 묘지명 중 ‘樂浪’을 출자로 칭하는 사례는 「이인덕 묘지명」이 유일하다. 이처럼 「이인덕 묘지명」은 특이한 사례이므로 보통 이씨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sup>22)</sup> 唐代 문헌에 나오는 ‘樂浪’은 고구려를 포함한 한반도 세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唐代 墓誌銘의 한반도 고대 삼국 관련 명칭 표기 통계에 의하면, ‘樂浪’은

2016, 40쪽.

19) 이동훈, 「高句麗·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2014, 275~276쪽.

20) 竹田龍兒, 「唐代士人の郡望について」, 1951, 472쪽.

21) 葛繼勇, 「高句麗·百濟人墓誌銘からみる高句麗末期の対外関係」, 『アジア遊学』 199, 2016, 47~49쪽.

22)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2019, 247쪽.



행정 명칭의 하나로서, 모두 4차례 표기되었다.<sup>23)</sup> 李仁德墓誌를 제외하면 ‘樂浪’이 고구려를 지칭한 사례는 2차례로서 고구려 출정에 관련된 唐人 「張敬玄墓誌」 및 「南郭生墓誌」에 나타난다. 그리고 신라를 나타낸 사례가 「滎陽縣君鄭氏夫人墓誌」에 단 한 차례 나타난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唐代 묘지명에서 한반도 삼국 전체 내지 백제를 지칭한 ‘樂浪’ 표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sup>24)</sup>

이 같은 당대 묘지명 용례를 고려할 때, 「이인덕 묘지명」에 등장하는 ‘樂浪’은 고구려를 지칭하였을 개연성이 일단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인덕 선조가 신라와 연계되었을 역사적 배경은 찾기 힘들며, 당대 표지명에서 ‘낙랑’이 백제를 지칭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난 ‘낙랑’이 만약 4세기 초 이후 한반도에서 축출되어 遼西지역으로 僑置된 樂浪僑郡과 관련된다면, 이후 낙랑교군은 여러 번 다른 장소로 교치되기도 하였지만 일단 고구려와 직접 연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王思禮(?~761)처럼 요서 지역에 소재한 營州 등에는 여러 사정으로 고구려인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사례가 보이기에<sup>25)</sup>, 이인덕의 조상이 요서 지역 출신 고구려인이었는데 요서의 대표 지역 가운데 고구려와 연관 이미지가 높은 ‘樂浪’을 ‘郡望’으로 채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료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인덕 조상이 언제 낙랑에서 증원으로 이주했는지 불명확하고 고구려 출신인지도 확인할 수 없기에 고구려 유민에서 제외한 葛繼勇의 견해도 일리 있어 보인다.<sup>26)</sup> 그렇지만 왜 굳이 「이인덕 묘지명」에서

23) 권덕영,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2014, 105~137쪽.

24) 권덕영,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2014, 130쪽.

25) 정병준, 「營州城傍高麗人’王思禮」, 『고구려발해연구』 19, 2005.

26) 葛繼勇, 「高句麗·百濟人墓誌銘からみる高句麗末期の對外關係」, 2016, 46~49쪽.

그 많은 지명 가운데 굳이 ‘樂浪’을 자신 조상의 출신지인 郡望과 연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

이에 대해, 권순홍(2020)은 “그의 가문은 이인덕대에 와서 처음 출사한 집안이었고, 출사의 계기 역시 정변에서의 軍功이었다. 또 그의 사망시 두 아들의 품계는 정6품상(司階)와 정7품하(中候)로 낮았다. 따라서 한인 문벌사회의 郡望에 가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묘지는 가족과 친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므로,<sup>27)</sup>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정보를 묘지에 적을 수 없었다. 결국 그의 가문이 명망가를 표방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望族’임을 강조하는 것뿐이었다. 현전하는 唐代의 郡望表에서도 樂浪과 관련된 성씨는 보이지 않는다.<sup>28)</sup> 즉, 郡望表에 등장하지 않는 지명에 ‘望族’이라는 표현을 더함으로써, 명망가임을 표방했던 것이다.”<sup>29)</sup> 라고 하여, 「이인덕 묘지명」에 樂浪望族이 기재되었던 이유를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서 명망가를 표방하기 위한 공여지책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권순홍(2020) 역시 이인덕 선조의 郡望으로 낙랑이 선택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한 해석은 새로운 자료 발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sup>30)</sup>

이처럼 「이인덕 묘지명」의 ‘其先蓋樂浪望族’이란 표현만으로는 이인덕의 출자가 반드시 고구려를 지칭하는 ‘낙랑’과 연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其先蓋樂浪望族’ 이외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나는 이인덕 출자 관련 또 다른 내용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7) 이성재,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145쪽.

28) 池田溫, 『唐史論攷-氏族制と均田制-』, 汲古書院, 2014, 26-39쪽.

29)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2020, 339쪽.

30)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2020, 339쪽.

## 2. 이인덕 가계의 기원

「이인덕 묘지명」에서 이인덕 가계의 기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말 주둥이 모양의 堯臣(즉 臯陶)과 용과 닮은 周史(즉 老子) 이후로  
진실된 후예가 먼 지방에 흩어져서 姓을 보존하여 대대로 전하였다.

동 묘지명의 표현은 의미상 둘로 나눌 수 있다. 즉, 하나는 입증하기 어려운 중국 先秦시대 인물인 臯陶와 老子를 이인덕의 먼 조상으로 설정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후예들이 遠方 또는 異域을 의미하는 ‘殊方’에 흩어져 여러 대에 걸쳐 살았다는 부분이다.

먼저, 臯陶와 老子는 실존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설화적인 인물이기도 하며, 이인덕 家系와의 연계 여부는 더욱 입증하기 어렵기에, 이는 이인덕이 立身揚名한 이후에 자신의 가계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중국 상고시대 인물들을 遠祖로 설정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고대 중국의 저명한 인물을 자신의 가계 遠祖로 설정한 사례는 고구려계 출자가 확실한 인물의 당대 묘지명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南單德 묘지명」에서는 南單德 가계의 遠祖로 “昔魯大夫 蒯之後容之裔也”(옛날 魯나라 大夫 南蒯의 후손이고 南容의 후예)라고 하였으며<sup>31)</sup>, 「劉元貞 묘지명」에서는 그 선조를 후한 광무제 劉秀의 여덟째 아들인 ‘東平憲王’이라고 하였다.<sup>32)</sup>

이어, 臯陶와 老子의 ‘진정한 후예들’이 ‘殊方’에 흩어져 여러 대에 걸

31) 권덕영, 『在唐韓人墓誌銘研究』(역주판), 2021, 404쪽.

32) 권덕영, 『在唐韓人墓誌銘研究』(역주판), 2021, 389쪽.

쳐 살았다는 내용은 이인덕 직계 조상의 출자를 기술한 것으로서, ‘殊方’의 사전적 의미가 中原의 시각에서 볼 때 변경 내지 이민족 지역을 의미하는 遠方, 異域<sup>33)</sup> 또는 異鄉<sup>34)</sup> 이기에, 이인덕 직계 조상들이 당의 입장에서 먼 지역 출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인덕의 선조가 실제 낙랑군 출신이었거나 4세기 이후 遼西 지역으로 僑置된 낙랑군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sup>35)</sup> 전자라면 중원 지역으로 이주 시기가 불분명하고, 후자라면 고구려인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외국을 의미하는 뜻은 아닌 “殊方”에서 대대로 성을 보 전했다고 하였으므로 이인덕 가문은 대대로 변경에 거주하다 이인덕 대에 이르러 비로소 長安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sup>36)</sup>

이와 관련, 일부 연구자는 동 ‘殊方’이 원래 中華 세계의 바깥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인덕 가문은 당 입장에서 외국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sup>37)</sup>,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나름대로 각기 갖고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3) 『漢語大詞典』 권5上 158쪽. “殊方 ② 遠方, 異域.”; 『漢韓大辭典』 권7 896쪽. “殊方 ② 먼 땅, 이역(異域). /漢, 班固《西都賦》踰崑崙, 越巨海, 殊方異流, 至於三萬里, /唐, 王維《曉行巴峽詩》人作殊方語, 鶯爲舊國聲.”

34) 『國學大師』 「國語辭典」 “殊方：異鄉 唐, 杜甫「九日」詩 ‘殊方日落玄猿哭, 舊國霜前白雁來.’”(https://www.guoxuedashi.net/hydc/258883c.html) 2024. 5. 1. 검색

35) ‘營州城傍高麗人’ 왕사례(王思禮, ?~761)를 포함하여 요서지역 출신 고구려계 인물은 여럿 있다.

36)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2017b, 75~77쪽.

37)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2019, 247쪽.

### III. 이인덕의 爵號와 私第·葬地 소재지

#### 1. 이인덕의 爵號

「이인덕 묘지명」에는 이인덕이 玄宗의 정변(712)에 참여한 후 공로를 인정받아 ‘金城縣開國子’에 봉해졌고, 이후 ‘金城郡開國公’으로 進俸되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공을 金城縣開國子에 배수하고, …開國公으로 進封하였다.

동 구절에 나타나는 지명인 ‘金城’은 지금의 중국 甘肅省 蘭州 및 西寧 일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西漢代(BC 81)에 처음 설치되어 여러 번 개명되었지만, 唐代에 蘭州로 복원되었다가 金城郡으로 바뀌었다.<sup>38)</sup>

이에 대해, 김수진(2017b)은 이인덕 가문이 대대로 거주하였던 ‘殊方’을 隴右道の 蘭州, 金城郡으로 추정하면서<sup>39)</sup> 바로 ‘金城’이 이인덕의 본적이었거나 조상과 관련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金城의 爵號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sup>40)</sup> 나아가 권순홍(2020)에서는 동 ‘金城’지역이 소그드인과의 연관성이 많은 지역이기에, 이인덕의 長安城 내 私第 소재지인 ‘醴泉里’ 및 葬地인 ‘高陽原’이 당대 소그드인들이 주로 집거하고 매장지로 이용하였던 경향성과 연결하여 이인덕을 소그드계 인물로 추정

38) 臧勵蘇 編, 『中國古今地名大辭典』, 香港: 商務印書館, 1982, 543쪽.

39) 『구당서』 권40 志 第20 地理3 十道郡國3 隴右道 蘭州下 “隋金城郡…隋開皇初置蘭州 以臯蘭山爲名 煬帝改 金城郡 隋置五泉縣 咸亨二年 復爲金城” 金城郡(蘭州)에 대한 상세한 연혁은 郭声波, 『中国行政区划通史 唐代卷(下)』, 復旦大学出版社, 2012, 993~994쪽 참조.

40)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2017b, 75~77쪽.

하였다.<sup>41)</sup>

하지만 이인덕이 작호를 받은 金城郡 및 그 치소인 金城縣이 포함된 隴右道는 唐 貞觀元年(627)에 설치된 十道の 하나로 그 관할지역이 지금의 甘肅省 隴山-六盤山以西지역 즉, 甘肅省 및 新疆自治區 일대<sup>42)</sup>로서 당대에 실크로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소그드인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고구려 유민이 徙民되어 대거 배치된 지역이기도 하다.

儀鳳 연간(676~678)에 高宗은 高藏에게 開府儀同三司 遼東都督을 除授하고 朝鮮王에 봉하여, 安東에서 살며 本蕃을 진무하는 주로 삼았다. 高藏은 安東에 이르러서 몰래 靺鞨과 서로 통하여 모반을 꾀하였다. 일이 [사전에] 발각되자, 소환하여 邳州로 流配시켰다. 나머지 사람들은 河南·隴右의 여러 州 분산하여 옮겼다.<sup>43)</sup>

儀鳳 2년(677)에 [高]藏에게 遼東都督을 除授하고, 朝鮮郡王에 봉하여 遼東에 돌아가 남은 백성을 安撫케 하였다. 이에 앞서 內州에 편입되어 있던 僑民을 모두 용서하여 돌려 보내고 安東都護府를 新城으로 옮겼다. [高]藏이 靺鞨과 반란을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었다. 소환하여 邳州로 추방하고, 나머지 僑民은 河南과 隴右로 옮겼다.<sup>44)</sup>

41)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2020, 337쪽.

42) 『당옥진』 권3, 轄境 “東接秦州, 西逾流沙, 南連蜀及吐蕃, 北界朔漠.”

43) 『구당서』 권199하 동이열전·고구려 “儀鳳中, 高宗授高藏開府儀同三司·遼東都督, 封朝鮮王, 居安東, 鎮本蕃爲主. 高藏至安東, 潛與靺鞨相通謀叛. 事覺, 召還, 配流邳州, 并分徙其人, 散向河南·隴右諸州.”

44) 『구당서』 권199하 동이열전·고구려 “儀鳳二年, 授藏遼東都督, 封朝鮮郡王, 還遼東以安餘民, 先編僑內州者皆原遣, 徙安東都護府於新城. 藏與靺鞨謀反, 未及發, 召還放邳州, 廝其人于河南·隴右.”

儀鳳 3년(678)에 이르러 그 사람들[고구려인]을 河南과 隴右 지방으로 옮겼다.<sup>45)</sup>

고구려 유민 일부가 隴右道 일대에 안치되어 고구려 단결병으로 활동한 기록이 『唐六典』과 王峻의 상소에서도 확인된다.

무릇 관내의 단결병은 … 秦州·成州·岷州·渭州·河州·蘭州의 六州에 高句麗와 羌兵이 있다.<sup>46)</sup>

고구려의 포로를 사막의 서쪽에 배치하고, 편맹은 靑州와 徐州의 서쪽에 흩어 두었는데 오직 이익만을 보았고, 경계의 안정에 힘썼다.<sup>47)</sup>

위 기록 관련, 왕준의 상소에서 고구려의 俘虜가 안치된 ‘沙漠之西’, 즉 고비사막 서쪽의 隴右道 지역에 속하므로 고구려 출신 단결병의 활동 지역과 중첩된다. 또한 669년 5월 并州와 涼州의 以西, 677년 2월의 隴右道의 여러 주에 고구려 유민이 사민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앞서 645년 蘭州와 하주 지역에 고구려 勝兵이 안치되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수렴하면, 并州, 涼州, 蘭州, 河州 등 隴右道에 속하는 여러 주에 편제된 고구려 유민의 대부분은 전쟁 중 포로가 된 병사들로 보인다.<sup>48)</sup>

45) 『삼국사기』 권46 崔致遠列傳 “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隴右.”

46) 『당육전』 권5 尙書兵部 “凡關內團結兵…秦成岷渭河蘭六州有高麗羌兵.” 같은 내용이 『舊唐書』에도 실려 있다.; 『구당서』 권43 志·職官2·尙書都省·兵部: “凡關內有團結兵 秦成岷渭河蘭六州 有高麗羌兵”

47) 『冊府元龜』 권366 王峻 “高麗俘虜置之沙漠之西 編氓散在靑徐之右 唯利是視 務安疆場.”

48) 정병준은 669년과 677년의 고구려 유민의 사민 지역이 隴右道로 겹치는 점을 지적하고, 隴右 지역의 단결병을 민병적 성격을 지닌 지방병으로 보았다.(정병준, 『唐朝

이처럼 金城郡의 별칭인 蘭州에는 고구려 유민의 사민은 물론 고구려 단결병 활동까지 확인되기에 고구려 유민 일부가 金城郡 지역에 世居하였을 것이며 이인덕 가계가 이에 포함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인덕은 당에 이주된 고구려 유민 2세로서 金城郡(縣) 일대에서 성장하여 이 지역을 본적지로 갖고 있었고, 이후 현종의 궁중 정변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이인덕이 자신이 자란 金城郡 지역과 관련된 官爵을 제수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작호의 郡號와 본적지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본적지와 받은 작호의 郡號가 다른 경우도 있다.<sup>49)</sup> 本籍地 封爵과 관련하여 隋代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던 봉작의 본적지 회피가 唐代에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고, 본적지 봉작이 빈출했다는 것을 正史와 묘지명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sup>50)</sup>

이처럼 이인덕이 받은 작호인 ‘金城縣開國子’ 및 뒤에 진봉된 ‘金城郡開國公’은 묘지명에서 이인덕 가문의 본적지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논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묘지명의 작호가 묘주인 이인덕이 소그드계 인물인지 아니면 고구려 유민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논거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197~199쪽).

49)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蕃』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2019, 247쪽, 각주 39.

50) 최진열, 「隋唐의 本籍地封爵의 性格」, 『中國古中世史研究』 20, 2008, 381~389쪽, 397쪽.



## 2. 이인덕의 私第·葬地 소재지

### 1) 私第

「이인덕 묘지명」에는 “薨於醴泉里之私第”(醴泉리의 私第에서 죽으니)라고 하여, 이인덕의 말년 거주지역이 장안성 내 醴泉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수진(2017b)은 “장안에 사제가 특정된 5품 이상의 고구려 유민은 모두 街東, 만년현에 사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冠軍大將軍(무산 정3품) 右威衛將軍(직사관 종3품)을 최종 관직으로 한 이인덕의 사제는 西市의 바로 위 醴泉坊에 있었다. 예천방은 소그드계의 집단 거주지였다. 이인덕의 출자가 분명하지 않고, 고구려 유민 2세대라고 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구려 유민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하였다.<sup>51)</sup>

권순홍(2020) 역시 김수진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인덕의 공훈 郡號인 ‘金城’과 그의 私第인 ‘醴泉坊’까지 연결함으로써 이인덕 가계를 서역의 소그드계와 연결시키려 하였다. 즉 권순홍은 “이인덕의 사제가 醴泉坊에 위치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5품 이상의 고구려 유민들은 주로 萬年縣, 그 중에서도 장안성의 街東에 거주했던 반면,<sup>52)</sup> 이인덕의 사제가 있었던 醴泉坊은 장안성 西市의 바로 북쪽, 즉 長安縣에 위치한다. 특히, 醴泉坊은 소그드계의 집단 거주지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sup>53)</sup> 이인덕은 고구려 유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기왕에는 이인덕의 출자에 관해 오로지 ‘樂浪望族’에만 집중했던 반면, 위의 견해는 그의 封號로서 기재된 ‘金城’과 그가 거주했던 ‘醴泉坊’을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

51)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2017b, 77쪽.

52) 고구려 유민들의 당 장안성 및 낙양성 내 私第 분포에 관해서는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의 私第와 葬地」, 『사학연구』 127, 2017a. 참고.

53)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의 私第와 葬地」, 2017a, 193-198쪽.

를 제공한 셈이다. 결국, 그의 가문이 누대에 걸쳐, 서역과의 교통로 상의 요지였던 金城, 즉 蘭州 일대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종3품 이상의 고위 관료였던 이인덕이 소그드계의 집단 거주지였던 醴泉坊에 거주했던 것은 이인덕과 그의 가문이 서역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sup>54)</sup>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여러 사료에서 고구려계 고위직 인물들은 장안성 東市 부근에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김수진(2017a, 2017b) 및 권순홍(2020)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이 반드시 東市 부근에만 거주하였던 것은 아니었을 개연성을 관련 사료를 정리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먼저 장안성 내 私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고구려계 인물은 高惠眞, 高支于, 高鑿苗, 高提昔, 李他仁, 泉男生, 泉獻誠, 高乙德, 泉男産, 泉毖, 高木盧, 王毛仲, 王景曜, 高仙芝, 南單德 및 李師古 등 모두 16인이다. 이 가운데 사제의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① 高提昔(來庭里), ② 泉南生(興寧坊), ③ 泉毖(興寧里), ④ 王毛仲(興寧坊), ⑤ 高仙芝(宣陽坊; 永安坊), ⑥ 南單德(永寧里) 및 ⑦ 李師古(道政坊) 등 7인이다. 이들 7인의 사제 소재지를 당시 장안성 지도<sup>55)</sup>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4)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2020, 336~337쪽.

55) 이 지도는 秋庭隆,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1995, 583~584쪽 ‘長安’ 항목 중 唐の長安城の復原図를 배경으로만 차용한 것이고, 사제의 위치는 고구려 유민 묘 지명과 『唐兩京城坊考』, 『長安志』를 분석하여 배치한 것이다.(김수진, 앞의 논문, 2017b, 208쪽) 지도의 ①~⑦ 번호는 앞에서 장안성 내 私第의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고구려 유민 이름 앞의 일련번호와 대응한다.

〈지도 1〉 당 長安城 내 고구려 유민의 私第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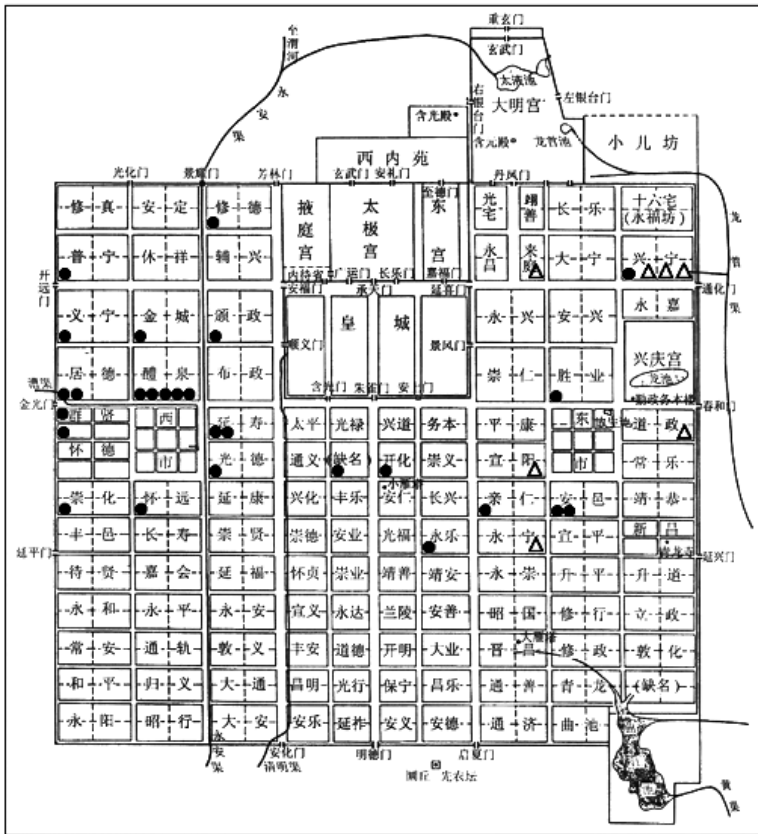


이처럼 고구려 유민 가운데 장안성 내 私第 소재지가 확인된 7례를 보면, 4례(① 高提昔, ② 泉南生, ③ 泉慈, ④ 王毛仲)는 장안성 내 동북방에 위치하지만 다른 3례(⑤ 高仙芝, ⑥ 南單德, ⑦ 李師古)는 장안성 내 중앙 이남의 동쪽에 위치하며, 서남쪽에 소재한 사제(⑤ 高仙芝의 별장)도 확인된다. 이외 장안성 내 사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여타 고구려 유민 9인의 사제는 구체적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기존에 확인된 고구려 유민 사제의 소재지가 장안성 내 街東에 집

중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高仙芝 사제(별장)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으며, 여타 9인의 사제 소재지는 장안성 내에서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수진(2017a, 2017b) 및 권덕홍(2020)의 주장처럼, 고구려 유민의 사제 소재지를 장안성 내 街東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동선행연구에서 인용한 소그드인 사제 소재지 역시 장안성 내 街西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지도 2><sup>56)</sup>에 나타나듯이, 고구려 유민 사제가 많이 소재한 街東지역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도 2> 당 長安城 내 소그드인(●)·고구려 유민(△) 私第 위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역과 교류상 길목에 위치한 金城郡(縣)과 관련된 작호를 받은 이인덕의 사제가 장안성 내 서남쪽 소그드인들의 집중 거주지인 예천방에 소재한 것처럼, 서역에서 군사적 활동을 많이 한 고선지의 사제 중 하나가 역시 장안성 내 서남쪽에 소재한 것도 생전 활동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인덕이 金城 지역이 포함된 隴右道 일대에 徙民된 고구려 유민 2세대였다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출신지 金城에 다수 거주하였던 소그드인들과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가졌고 후에 공을 세워 장안성 내 사제를 소그드인 집단 거주지인 醴泉里로 정하였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이인덕의 장안성 내 사제 소재지만으로 이인덕의 출자를 소그드계로 보면서 고구려 유민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거 측면에서 취약하기에 성급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2) 葬地

「이인덕 묘지명」에는 이인덕의 장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高陽原에 장사지냈다.

즉 이인덕의 葬地가 장안성 서남쪽 교외의 고양원 지역이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권순홍(2020)은 “고양원은 장안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장지로, 西郊에 해당하는데, 西郊에는 대체로 일반민 혹은 중하급 관인의 무덤이 많았고, 특히 서역으로부터 온 非漢人의 무덤이 두드러졌다는 해석을

56) 福島惠, 『東部ユ-ラシアのソグド人-ソグド人漢文墓誌の研究-』, 汲古書院, 2017, 151쪽;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2017b, 274쪽 인용.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57)</sup> 고구려 유민 가운데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모두 東郊를 장지로 했다는 점<sup>58)</sup>에서 이인덕의 장지 선택은 고구려 유민들과는 명백히 달랐다.<sup>59)</sup> 라고 하여, 이인덕의 장지 선택이 고구려 유민들과 달랐기에 고구려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장안성에 거주한 고구려 유민 가운데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모두’ 東郊를 장지로 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관련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렵다. 즉, 편적지가 장안으로 확인된 고구려 유민 중 장안성 교외에 葬地가 있었던 인물은 ①高饒苗(장지: 城南原), ②高提昔(萬年縣 澮川之原), ③李他仁(長安城東 白鹿原), ④高乙德(杜陵之北), ⑤高木盧(京兆 崇道鄉 齊禮里 白鹿原之右) 및 ⑥南單德(萬年縣 崇義鄉 胡村 白鹿之西原) 등 6명이다.<sup>60)</sup> 상기 6인의 고구려 유민 가운데 高饒苗를 제외하면 5인의 장지는 일단 장안성의 東郊로 분류할 수 있다. 高饒苗의 장지는 장안성의 남쪽인 “城南原”이라고 다소 막연하게 기록되었지만, 일단 장안성의 東郊는 아니기에, “고구려 유민 가운데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모두 東郊를 장지로 했다”는 김수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리어 현재까지 밝혀진 사료상에서 高饒苗의 장지로 표기된 “城南原”의 범위에, 이인덕의 장지인 장안성 서남쪽의 高陽原을 배제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 장안성에 私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고구려 유민은 모두 16인이다. 그런데 唐律에 의하면, 官人이 任地에서 죽었을 경우 반드시 ‘還鄉’하라고 하였고, 송환하지 않을 경우 杖 100대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sup>61)</sup> 이러한 唐律에 따라, 任地에서 사망한 高乙德도

57) 妹尾達彦, 「唐長安の都市生活と墓域」,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3, 2005, 55쪽.

58)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2017b, 297쪽.

59)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2020, 337~338쪽.

60)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2017b, 225~6쪽 <표 14>.

장안성으로 ‘還鄉’되어 장안성 근교 “杜陵之北”에 매장되었다. 따라서 장안성에 私第를 가졌던 고구려 유민 16인 역시 사망지와 무관하게 최종 장지는 唐律에 의거하여 장안성 근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 16인 가운데 장안성 근교의 장지가 확인된 인물은 高鏡苗, 高提昔, 李他仁, 高乙德, 高木盧 및 南單德 등 6인뿐 이다. 이 가운데 高鏡苗의 장지는 장안성 동교가 아니었으며, 여타 10인의 장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장지가 확인되지 않는 고구려 유민 10인의 장지가 반드시 장안성 東郊이었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高鏡苗처럼 장안성 남쪽 교외이었을 수도 있으며 이 중에는 이인덕 장지인 교양원일 개연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있는 사료상의 근거도 없다.

이에 따라, 이인덕의 장지가 장안성 서남방에 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인덕이 고구려계가 아닌 소그드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논거가 취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IV. 결론

고구려 멸망(668) 이후 唐 內地로 徙民된 고구려 유민 및 그 후예와 관련, 사료가 부족하고 관련 기록이 애매하여 민족 정체성 논란이 큰 인물인 李仁德(672~733)의 出自에 관한 논거를 재검토한 결과, 이인덕에 관한 거의 유일한 1차 사료인 「이인덕 묘지명」에서 그의 郡望에 관한 표현인 “其

61) 『唐律疏議』卷第26 雜律 應給傳送剩取 “[律文] 卽卒官 家無手力不能勝致者仰部送還鄉 違而不送者 亦杖一百 [疏] 官人在任 以理身死 家道既貧 先無手力 不能自相運致以還故鄉者 卒官之所部送還鄉 稱不送者 差人部領 遞送還鄉 依令去 官家口累弱 尙得送還 況乃身亡 明須准給手力不送 違而不送者 亦杖一百.”

先蓋樂浪望族”의 ‘樂浪’을 제외하면 고구려와 연관 지을만한 단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樂浪望族”이라는 표현 역시, 이인덕 선조가 실제 낙랑군 출신이었거나 교치된 낙랑군 출신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자라면 증원으로의 이주 시기가 불분명하고, 후자라면 고구려인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이인덕 묘지명」에 나타나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논거가 부족하기에 이인덕 출자 문제는 부수적인 방증 사료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행연구 가운데 이인덕의 고구려계 혈통을 부인하는 견해의 핵심 논거를 살펴본 결과, 「이인덕 묘지명」의 ‘樂浪望族’ 표현만으로 이인덕 가계를 고구려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역으로 굳이 고구려와 관련이 깊은 ‘낙랑’을 郡望과 연결한 이유도 설명되기 어렵다. 또한 이인덕 공훈 郡號인 ‘金城郡’은 고구려 유민이 徙民되고 고구려 단결병으로도 활동한 隴右道 지역에 속하였기에, 도리어 이인덕의 고구려계 출자 개연성을 입증할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唐京 長安城 내 거주한 고구려 및 소그드계 등 異域 출신 유력 인물들의 私第 소재 구역 및 葬地가 반드시 出自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닌 여러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樂浪望族’ 이인덕의 出自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논거만으로 고구려계 유민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거나, 기존 사료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명확한 논거가 나타날 때까지 이인덕의 출자에 관한 단정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024.06.27. 투고 / 2024.08.03. 심사완료 / 2024.08.08. 게재확정)



[Abstract]

**A Review on the Origin of Lee In-deok, who claimed  
to be a descendant of ‘the prestigious family of Nakrang’**

Chung, Jae-nam

Lee In-deok(672-733),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figures in his ethnic identity, seems to be related to Goguryeo refugees and their descendants who were massively relocated to the interior of the Tang Dynasty after the collapse of Goguryeo in 668. Early researchers only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being related to Nakrang, noting that his ancestors were described as “the prestigious family of Nakrang(樂浪望族)” in the Lee In-deok tomb’s inscription. Since then,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presumed that Lee In-deok, who participated in the royal coup d’état started by Emperor Xuanzong(玄宗) of the Tang Dynasty to remove the Empress Wu(韋) of Emperor Zhongzong(中宗), was a descendant of Goguryeo. On the other hand, other previous studie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he was a descendant of Goguryeo refugees only with the description of “the prestigious family of Nakrang” in his tomb inscription. Some preceding researchers then assumed Lee In-deok as a Sogdian, citing that “Jincheng-jun Kaiguozhi(金城郡開國子),” which means “the aristocrat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country as a native of Jincheng-jun,” was historically the affiliated area of the Sogdians, and secondly, “Liquan-li(醴泉里),” where his private mansion was located, and “Gaoyang-yuan(高陽原),” where his tomb was

located, were both the collective residences and cemeteries of the Sogdians in Changan(長安), the capital of the Tang Dynasty.

Therefore, as a result of this study's empirical review on the arguments of the main issues, it is difficult to connect the Lee In-deok family with Goguryeo only by the expression "the prestigious family of Nakrang" in his tomb inscription, but conversely, it is also difficult to explain why Lee In-deok tried to connect the name "Nakrang," which is historically related to Goguryeo, with the place of origin of his ancestors in the inscription. In addition, among the titles that praised Lee In-deok's contribution in his inscription, "Jincheng-jun(金城郡)" was an area where Goguryeo refugees had been forcibly mass-migrated and later belonged to Longyou-dao(隴右道), where the Goguryeo people had since been active for a long time as "the unified military group composed of Goguryeo people," so it can be an argument to prove the possibility that Lee In-deok was a blood-related descendant of Goguryeo. And various cases were confirmed that the location of private mansions and cemeteries of prominent minority figures such as Goguryeo and Sogdians who lived in Changan, the capital of the Tang Dynasty, were not necessarily fixed according to their ancestry.

In conclusion, the issue of revealing the lineage of Lee In-deok, who claimed to be from "the prestigious family of Nakrang" in his tomb inscription, is difficult to classify as a descendant of Goguryeo refugees based on historical arguments known to date, but it is also not easy to conclude that he is not of Goguryeo descent.

□ Keyword

Lee In-deok(李仁德), Goguryeo refugees, Sogdians, the prestigious family of Nakrang(樂浪望族), Jincheng-jun(金城郡), Longyou-dao(隴右道), Liqun-li(體泉里), Gaoyang-yuan(高陽原)

[참고문헌]

1. 사료류

『舊唐書』, 『唐六典』, 『冊府元龜』, 『三國史記』

孫蘭風·胡海帆 主編, 『隋唐五代墓誌匯編: 北京大學卷』 1, 天津古籍出版社, 1992.

于平 編輯, 『中國歷代墓誌選編』 4, 天津古籍出版社, 2000.

권덕영, 『在唐韓人墓誌銘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2. 연구논저

곽승훈 외 7인 역주,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권덕영, 「한국고대사 관련 中國 金石文 조사 연구-唐代 자료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97, 한국사학회, 2010.

\_\_\_\_\_,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5, 한국고대사학회, 2014.

\_\_\_\_\_,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자료편·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권순홍, 「李仁德 墓誌銘과 그 출자」, 『목간과 문자』 24, 한국목간학회, 2020.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의 私第와 葬地」, 『史學研究』 127, 한국사학회, 2017a.

\_\_\_\_\_,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b.

단국대학교동양연구소,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바이건싱(拜根興) 지음, 구난희·김진광 옮김, 『당으로 간 고구려·백제인: 시안·뤄양 출토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안광호, 「현대 漢字語 辭典에 나오는 ‘郡望’의 의미 검토」, 『동양학』 67, 단

- 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 안정준, 「당대 묘지명에 나타난 중국 기원 고구려 유민 일족의 현황과 그 관계 기술」, 『역사와 현실』 101, 한국역사연구회, 2016.
-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 「‘內臣之番’으로서의 百濟·高句麗遺民 - 武周시기부터 玄宗 開元期에 이르기까지 유민 양상과 그 변화」, 『高句麗渤海研究』 64, 고구려발해학회, 2019.
- 윤용구, 「樂浪遺民의 墓誌 二例」, 『仁荷史學』 3, 인하역사학회, 1995.
- 이도학, 「樂浪郡의 推移와 嶺西 地域 樂浪」, 『동아시아고대학』 3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 이동훈, 「高句麗·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韓國古代史研究』 76, 한국고대사연구회, 2014.
- 이문기,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 『大邱史學』 100, 대구사학회, 2010.
- 이성제,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75, 한국고대사학회, 2017.
- 정병준, 「營州城傍高麗人’ 王思禮」, 『고구려발해연구』 19, 고구려발해학회, 2005.
- \_\_\_\_\_,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정호섭, 「高句麗史에 있어서의 이주(migr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先史와 古代』 53, 한국고대학회, 2017.
- 최진열, 「隋唐의 本籍地封爵의 性格」, 『中國古中世史研究』 20, 중국고중세사학회, 2008.
- \_\_\_\_\_, 「唐人들이 인정한 高句麗人의 正體性- 唐代 墓誌銘에 보이는 高句麗의 別稱(朝鮮·三韓·扶餘) 分析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24, 동북아역사재단, 2009.

- 姜清波, 「參與唐玄宗宮廷政變的高麗人事跡考」, 『青海社會科學』 2004-6, 青海省社會科學院, 2004.
- \_\_\_\_\_,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_\_\_\_\_,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 羅竹鳳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9.
- 苗威,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11.
-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以西安洛陽出土墓志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葛繼勇, 「高句麗・百濟人墓誌銘からみる高句麗末期の對外關係」, 『アジア遊學』 199, 勉誠出版, 2016.
- 竹田龍兒, 「唐代士人の郡望について」, 『史學』 24-4, 三田史學會, 1951.
- 秋庭隆, 『日本大百科全書』, 小学館, 1995.
- 植田喜兵成智, 「韓國學界における遺民墓誌研究の現況 - 最近刊行された資料集の比較を中心に -」, 『韓國朝鮮の文化と社会』 17, 韓国・朝鮮文化研究会, 2018.
- 李基天, 「唐代高句麗・百濟系蕃將の待遇及び生存戰略」, 宮宅潔編, 『多民族社會の軍事統治—出土史料が語る中國古代』,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8.
- 妹尾達彦, 「唐長安の都市生活と墓域」,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3, 大和書房, 2005.
- \_\_\_\_\_, 「生前の空間、死後の世界—隋唐長安の官人居住地と埋葬地—」, 『中央大學文學部紀要 史學』 62, 中央大學文學部, 2017.
- 福島惠, 『東部ユーラシアのソグド人—ソグド人漢文墓誌の研究—』, 汲古書院, 2017.